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라운드 테이블
구민정, 김영민, 노은주, 한성우 <PT & Critic - 2013 Reunion>

일시 : 2016년 1월 9일 (토) 오후 4:00 - 6: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패널 : 강석호, 오세원, 이세준, 최정윤

김인선 : 윌링앤딜링의 PT&Critic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첫 개인전을 가지는 신진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선배작가들의 여러 방면의 어드바이스가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시기라고 판단하여 주로 기성 작가들이 패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작가들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에 대하여 생각한 끝에 해당 전시 년도의 2년 후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활동 중인지 볼 수 있는 전시를 하자고 작가들과 약속했으며 이번 Reunion전이 그 첫 번째 그룹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패널로 활동해주신 강석호 작가와 오세원 기획자가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며, 독립 기획자 최정윤씨와 작가 이세준씨는 참여 작가와 같은 세대로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초청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김영민 작가는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한성우 :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성우입니다. 2013년도에 했던 작업에서 형식적으로도 변화가 많았고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작업설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과 그것을 화면 위에서 구체화시키는 특정한 방식들 그런 그림에서 드러나는 성격이라든지 태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대 뒷면이라는 상상적이고 관념적인 장소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바닥 위에 만들어지는 얼룩들이라는 조금은 구체적인 흔적들이었습니다. 지금 작업에서는 무대의 뒷면이라는 것이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그리고 싶은 이미지, 분위기라면 바닥 위의 얼룩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화면에서 구체화시킬 때 어떤 방법 그리고 혹은 성격들을 만들어내고 결정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감이라는 물질을 다루는 방법들이나 감각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 보다는 완성된 회화의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림을 보았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언어화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미지가 물감으로 발려나가는 과정들 그 과정에서 보이는 성격이 바뀌고 바로 언어화되지 않는 부분에 관심이 가고 그림에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말투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몸짓 등등 그 사람만의 어떤 자세같은, 그 사람만의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려내는 방식 이런 것들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공실이라는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를 그리는 작업에서 지금하고 있는 작업이 출발했습니다. 목공실이라는 장소는 저희 학교에 있는 공동 작업실입니다. 개인 작업실들은 학교에서 자리를 주지만 목공실은 누구의 자리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작업을 하면 빠져나오는 공동작업실입니다. 사람들이 들고나가면서 계속 변하는 풍경의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부재 흔적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들을 담고 싶어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때는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그림 옆에 붙여두고 그림을 그렸고 그림은 쉽게 쉽게 잘 그려졌는데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게 안 그려있는 것 같고 텅 비어보인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목공실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사실 그림을 그릴 때 목공실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로써의 대상으로 목공실이 있지만 정작 그것들이 화면에 붓질로서 만들어질 때의 행위를 설명할 때 소재로써의 목공실이 아니라 목공실 안에 그림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목공실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림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제 그림에서는 그게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목공실이라는 소재 안에서 그림의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 시도를 했던 대부분의 그림들이 뜯어져서 작업실 바닥에 깔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대상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무작정 드로잉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한두 달 동안 작업실은 가지도 않고 도서관에서 머리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실제 장소에서 드로잉을 한다는 것이 우스워졌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드로잉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 드로잉들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드로잉을 하면서 생긴 변화가 목공실이라는 단어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드로잉들만 놓고 보니 이 그림들을 보고 목공실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공실이 빠지고 남아있는 풍경이라는 단어와 드로잉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때 했던 작업들이 ‘풍경 시리즈’입니다. 이 때는 해놓았던 드로잉들을 보면서 했던 작업들입니다. 목공실이라는 실제 장소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옆에 두고 그릴 때보다 목탄으로 쓱쓱 그린 것을 두고 할 때 화면 안에서 즉각 선택해야하는 부분들이 늘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최근 작업들은 풍경이라는 단어도 빠져나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경이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드로잉들을 보지만 풍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궁금했었고 그 때 생각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바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공실이라는 장소에서 제가 봤던 바닥의 성격같은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거기에서 물감을 바르고 있고 옆에서 한참 수다를 떠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페인트들을 보며 페인트들 그 두 가지 흔적이 똑같은 흰색 물감의 흔적인데 성격이 매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발리는 흔적이고 밑에 떨어진 흔적들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에 관심을 가졌던 장소도 부재의 흔적들이나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무대 뒷면이라고 표현한 것도 무대 정면은 완성을 전제로 하고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놓여지는 반면 뒷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그림에 그런 성격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연성이라든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형태들 한 눈에 풍경으로 포착되지 않는 감각들을 과정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때 그리던 그림의 드로잉 이미지들을 떼어놓고 화면에 우연성의 흔적들을 만들었습니다. 덧그리고 지워내면서 만들어지는 흔적들을 두기도 하고 물감을 뿌려보기도 하고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화면에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흔적들이 서로의 원인이 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의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그렇게 완성된 처음 했던 그림이 제게는 가장 사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 이후로 했던 작업들, 지금 전시되어진 작업들을 풍경이 아니고 장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풍경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풍경을 그릴 때 보았던 것들, 보이는 것을 그린다는 느낌은 스스로 그림 안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 회화 안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광경이라는 의미에서 풍경보다는 장면을 제시한다는 태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비하면 2013년도 작업들은 풍경이라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풍경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풍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보는 태도, 관점이 들어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과정에서 본다는 행위와 그린다는 두 가지 행위가 저에게는 같은 말처럼 되었습니다. 보기로서의 그리기, 그리기로서의 보기라는 순환적인 질문 안에서 전진했던 작업들, 그 이후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정 : 저는 지금 프레젠테이션에는 윌링앤딜링에서 전시했던 작업부터 시간순서대로 최근 작업까지 담겨있습니다. 윌링앤딜링에서 했던 작업은 'hooooo-'입니다. 입으로 바람 부는 소리를 제목으로 지었던 작업입니다. 이 때 작업은 바람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었습니다. 환풍기나 선풍기, 태풍의 이미지같은 것들이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서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색이 빠지고 모노톤으로 설치되었었던 작업입니다. 윌링앤딜링 전시 이후로 운이 좋게도 계속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전시에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를 하고 전시 기간 동안에 이 디피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 들었던 생각은 정해진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회화라기보다는 드로잉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로잉이 가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싶은 전시였습니다. 크게 있었던 드로잉 작업을 절단해서 재배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디링'이라는 전시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개인전입니다. 윌링앤딜링 전시 이후부터 공간이라는 요소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모티프가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라는 전시장이 천장이 낮고 노출천장인데다가 시끄러운 요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지분한 요소들에 의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 생명체들을 전시하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을 입체로

설치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들 예를 들면 날아다니면서 어디에 거주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이미지 하나하나들을 의인화시키면서 작업했습니다. 이 전시도 마찬가지로 전시를 하는 기간 도중에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는 변경하였습니다. ‘슈가룸’이라는 작업은 대학로예술극장 프로젝트 스페이스 stage 3X3의 창문에서 전시를 했던 작업입니다. 2014년도에 발견된 감각들이라는 전시를 카페 공간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상상마당에서의 단체전에서는 제목이 ‘O O O O’ 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읽어도 되고 제가 의도했던 것은 움직임에 관한 느낌을 도형으로 보여질 수 있는 도형을 찾다가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를 하게 될 때 전시공간을 미리 염두해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유리창이 있고 계단이 있고 그런 공간을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위해 받았던 질문이 작품의 변화였는데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것을 지속해가고 있는지 고민했는데 어떤 것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저는 입체와 일루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공간과 평면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색과 흑백의 드로잉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험했었습니다. 회화에 대한 태도, 이미지를 다루는 태도와 방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혼재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충돌하는 풍경들은 화면 안에 넣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은주 : 안녕하세요. 저는 노은주입니다. 저는 개별 작업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나 크게 변화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지속되는 지점은 관심을 가지는 외부의 장면들은 규칙과 해체, 생성과 사라짐이 반복되는 도시의 시간성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 작업들은 시간 안에서 사물 단위로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에서 시작합니다. 풍경들이지만 만져지는 사물부터 눈에 생경한 사물들 건물도 일종의 사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물 단위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 풍경을 재현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물화의 형식이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지점은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경으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외부적인 풍경이나 도시의 어떤 장면들에서 사진이나 실제 경험한 사물들을 모형의 형태로 다시 변형하고 그것들을 다시 배치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풍경1이라는 작업이고 제가 이전에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모형이나 모티브가 된 사물들이 작업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완성된 작업이 못되었던 형태들 저에게는 일종의 찌꺼기와 같다고 생각되었고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형태들을 나열한 그림입니다. 이전의 작업들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물의 형태는 힘의 균형상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연약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구조물들을 재현하는데 관심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전에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고 싶은지를 면밀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된 표피적인 형태들을 나열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그림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정물화의 형식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사물들을 그림이라는 바닥 위에 올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본다는 행위 자체가 표면적인 평평하고 납작한 외부의 이미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미지를 보고있나 라는 것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내가 밖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의 환경을 사고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선 : 일단은 작가분들 개개인들의 작품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패널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관객들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김영민 작가는 평소에 본인이 쓰는 일기 또는 낙서들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그것을 보고 마우스로 똑같이 그려서 출력하고 그것을 캔버스에 똑같이 그립니다. 저 작업은 출력물의 단계로 많이 진행을 못하셨지만 김영민 작가의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작업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보다는 본능적인 행위로서의 그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사전에 김영민 작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바쁘셔서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패널분들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원 : 저는 이 전시의 젊은 작가들이 2013년에 전시하셨을 때와 PT하셨을 때도 참석했고, 2년 후인 지금 그 때보다 원숙해진 작품과 발표하실 때 편안한 모습들에서 미술계라는 모임에 진입 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들의 작품들과 성향들, 형식과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이 그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가치와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지만 구민정 작가의 윌링엔딩링이 경리단 길에 위치했었을 때의 작품이 생각납니다. 장소특정적 설치라기 보다는 가변설치적인 페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하실 때나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루하고 평면은 결국 취향이며, 어차피 잉여의 산물이고 잉여의 산물으로써 자본화되어버린 것인데 거기에 어떤 논쟁 거리가 있느냐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텐데 여전히 세상을 보는 문이라든지 평면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평면과 공간간의 조화, 공존이라는 부분들이 키워드이지 않나 그것이 사회를 보는 풍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학과이고 비평가는 사람이니까 작품이 단순히 개인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작품이라는 사건의 차이, 그녀가 그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즉흥성이 중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즉흥성에 대해서 현재 여기 다른 작가분이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반되어지고 치환되고 결정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야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페인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보는 창 밖의 사회 풍경이라고 느껴졌고 노은주 작가님은 최근에 작업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

가 보는 사회적 풍경은 결국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급속한 성장과 욕망의 콘크리트인데 그것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쓰셨습니다. 미니어처로 재배치하고 싶어질 정도로 사회적인 풍경을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작가의 작품은 2013년도부터 좋아했습니다. 일상과 반복되는 끄적거림, 습관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나의 삶과 밀착되어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전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우 작가님의 작품은 2013년도와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작업실, 목공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캔버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되어 그가 느끼는 공간에 대한 질감의 정서라든지 감성이 고스란히 남겨져있었던 것에서 현재는 작업실의 우연적으로 뿌려진 내지는 내 힘이 아닌 흔적, 잉여, 남겨진, 바닥과 같이 우리가 눈 여겨 보지 않는 것, 가장 자리에 대해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 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작업의 과정 중에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작업실에서 강석호 선생님과 만났었는데 이 작가 분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너무 진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진지했는데 독일 유학을 가서 작업을 하면서 즐기고 있었다, 진지하면서 즐기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학부 전공이 페인팅이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진지해서 재미없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호 :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작업이 아닌 삶의 이유로 들어오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과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소진된다는 말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간은 보호막같은 존재인데 보호막을 나가면 우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서로 공감하지 않고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하고 철저히 변방의 존재가 되는데 작가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번 전시를 하기 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정윤 : 저는 지금 소속 없이 기획하고 글도 쓰고 있는데 미술관에서 공부하고 현장에 나와서 작가분들과 만나고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기획자는 매개하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 전시가 있고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제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다른 일을 하면서 강석호 선생님과 오세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

고 고충을 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여주고 관객을 마주할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이야기이든 비판이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작가 분들에게도 좋은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감상 혹은 제가 생각하는 회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은주 작가님의 예전 작품들이 가졌던 무너져 내리고 새롭게 구축되고 만들어지는 공간, 건축물에 관한 사실적인 풍경과 구상화의 형태의 이미지였다면 2년이 지난 지금 보여지는 작품들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외재적인 외부를 바라보던 시선이 그것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를 구체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형태가 추상화되고 기본의 형태로 환원되면서 그것들을 미니어처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방 안에서 하나의 세상을 작가가 구축해가는 것이 회화라고 생각했을 때 작가 자신이 만들어놓은 베이스 위에 내가 보았던 대상을 최소화하는 단위로 환원시켜놓은 구체적인 사물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빛과 위치로 배치하고 색을 선택해서 이미지 위로 투사시켜 놓은 것이 뒤에 보이는 작품 혹은 저 쪽에 보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들에서 주워왔던 잔여물, 재료의 일부라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가진 형태 자체로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직접 경험했던 일부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형식적으로는 정물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의 자신의 관심사들이 표현되는 방식만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이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았던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회화가 존재하는 이래로 계속 존재했는데 그리는 대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해골이든 사과든 금 목걸이가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쓰레기 혹은 파편처럼 남아있던 콘크리트 조각이나 돈 주고 산다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분홍색 스티로폼 등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지금을 살아가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체들이 조합되어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한성우 작가님은 예전 작업부터 구체적인 대상을 그 대상의 형태와 비슷한 색채로 화면 위에 다시 구성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흔적과 순간의 제스처와 작가가 느꼈을 기분, 물감, 붓을 통해 닿을 때 느낌들만 남아있는 자취로서의 회화로 화면구성 방식이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기획자도 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긴 시간을 통해서 쌓아가는 정체성이나 관심사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기억되고 호명되기 위해서는 자기 반복을 지속해서 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의 관심사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버리고 공허하다고 생각했고 발전시켰을 때 내가 즐겁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나 내 안의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구민정 작가님은 예전 작업은 보지 못했는데 발표를 통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전시하는 기간에 작품을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의 실험 자체에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작품의 완

성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지 자체로만 보면 선도 있고 특정한 형태가 반복되기도 하고 털 같은 재료, 플랫폼 아크릴 등 재료를 쓰는 방식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평면의 평평한 부분 말고 옆의 부피에도 그림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평면을 입체로 대하는 태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도 더 궁금하고 덩치 큰 바닥에 사각의 캔버스가 놓여있는 것 자체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썼을 때 이미지들을 불러서 겹쳐서 레이아웃 위에 놓는 것처럼 방식 자체가 컴퓨터를 이용한 틀을 사용한 것 같은 이미지 기법의 느낌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이미지의 형태를 만들어낼 때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구민정 : 컴퓨터 틀이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읽어주시니 흥미롭습니다. 제가 변형 캔버스를 사용하고 옆면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오브제로서 그림을 걸었다기보다는 오브제를 하나 놓았다는 느낌을 의도한 것입니다. 작업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페인팅 라인이나 흘러 떨어지는 라인은 제 작업실과 관련 있습니다. 노량진이라는 공간은 개발이 진행 중인 장소로 매끈하게 올라가는 건물이 세워지는 와중에 골목이 있고 구불구불한 것들이 혼재하는 모습들이 제 작업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업에서 하고 싶은 것은 충돌하는 것들을 조화시키고 싶습니다. 충돌 그 자체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고 원래 공간에 있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시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세준 : 저는 작가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작업들을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저도 작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관적으로 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네 명의 작가들이 PT & Critic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전시를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각자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들이 상충되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면서 묘한 균형을 이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성우 작가님은 풍경화에서 형태적인 재현이 아닌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성이 많이 남은 재현이라는 점에서 '장면'이라는 제목을 붙이셨고 이에 대척점인 것이 노은주 작가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우 작가님은 어떤 대상, 씬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반면에 노은주 작가님은 감각이나 생각을 알레고리화한 정물로 환원시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흥미로웠고 미적 취향도 대척점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버된 이미지를 가져오는 한성우 작가님과 반대로 노은주 작가님은 정적으로 구도를 만들고 미묘하고 긴장감 있는 배치를 통해 화면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보여줍니다. 노은주 작가님과 구민정 작가님 또한 대척점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은주 작가님은 자신의 호흡으로 여러 가지 질감들을 변화시켜 화면 안에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석고, 나무 느낌을 작가의 필터링된 느낌으로 가지고 오는 반면 구민정 작가님은 그런 것을 나이브하게 과시하면서 각각의 질감들을 드러냅니다. 최정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 질감, 흘러내리는 아크릴, 섬세한 연필의 질감 등 충돌이라는 단어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작가만의 방식으로 필터링된 느낌이 아니어서 노은주 작가의 작품과 상충되기도 하

고 보완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성우, 노은주, 구민정 작가님의 작품은 대척점에 있으면서 각자의 미적인 성취를 가지고 서로의 것들을 보완해주고 어떤 것이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펼칠 수 있느냐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전시의 키라고 생각했던 것이 김영민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 김영민 작가님은 재현이라는 태도를 조롱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회화에서의 재현은 가치 있는 것을 박제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진이 없었을 때 초상화는 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중요한 이미지를 박제해서 영원히 가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김영민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낙서는 무의미하고 휘발되어 버리는 것들인데 그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재현의 행위 자체를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있는 조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대인과 닮아있고 자조적인 모습이 동시대 작가들의 기조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작가들이 각각의 미적취향과 미적관을 가지고 대척점에서 서로의 것을 보완해주고 상충하고 그 전체를 김영민 작가가 묶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영민 작가의 작업적인 태도로는 불편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작업의 크기가 가변크기여서 현재 전시되어 있는 크기를 제시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는 점과 픽셀이 깨지는 부분 등이 불편했습니다. 김영민 작가님이 주신 자료를 통해 말하고자 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더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객 : 의견이 다양해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진지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태도가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구민정 : 사전에 서로에 대한 질문지를 받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받았던 크리티크보다 심도 있게 작업을 생각해주신 것 같고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은주 : 진지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보다보니까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서 진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즐겁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작가의 작품 중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 있는데 그림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드로잉이었습니다. ‘그림은 삽질이다.’는 느낌이었는데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불편했습니다. 김영민 작가가 쓰신 글 중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의 무의미함,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과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한 무력함이 느껴지는 글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무력함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이 가면서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진지함이자 다른 작업을 진지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오세원 : 김영민 작가의 작품을 왜 불편해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 작품이 좋 으면서도 김영민 작가의 느낌이 딱 느껴집니다.

한성우 : 작품에서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그림과 관련된 모든 입장이 저와 완전히 정반대이지만 흥미로웠습니다. 김영민 작가는 자신의 상황에서 내가 보 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고민을 했었고 작업을 대하는 태도와 삶이 같은 느낌이 들 어서 좋았습니다.

노은주 : 저는 지금 작업실이 없기 때문에 매 달 캔버스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캔버스 크 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를 넘어서는 큰 그림, 무거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궁금증 이 있었습니다.

한성우 : 작업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되 면 다른 곳을 알아보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뭐, 어쩔 수 없지'라 고 생각해버리는 편입니다.

관객 :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젊은 작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직업의 영향으로 작품을 볼 때 저는 재료 나 제작년도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 전시의 대부분의 작품은 제작년도가 2015년인데, 전 시 일정에 쫓기다 보면 생기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김인선 : 이세준 작가님도 전시하실 때 그림이 마르지 않아 고생 하셨지요?

이세준 : 어제도 제 작품을 전시하기로 한 곳에서 미처 말리지 못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한 그 작품이 망가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림을 완전히 말린 후에 전시를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스케줄 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이 모두 신경 쓰고 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우 : 작업을 끝내놓고 작업실에서 시간을 두고 개인전, 단체전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에도 그렇고 더 하고 싶다는 욕심에 마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세준 작가님 토크 때도 완성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마감 때까지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림이라는 것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얘기는 전달되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라는 식이 아 니기 때문에 겉은 말라도 속이 마르지 않는 경우도 생기지요.

관객 : PT & Critic의 다목적 정의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들의 변화 나 차이, 발전, 시선의 확장 등 긍정적인 성과 외의 실패하거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궁금 합니다.

노은주 : 2년 동안 느낀 것은 발전이라는 것이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스스로 실패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Reun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시를 할 때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2년이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외부의 조건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감정상태가 무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태에 대한 반응은 적어진 대신에 조형성, 그리고 있는 그림의 형태, 질감 등 시각적으로 더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중요하게 넘어가야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전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회화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성우 : 작업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실재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맥락을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 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미지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구민정 : 2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기회도 잡을 수 있어서 작업에 관한 부딪히는 것들은 견딜 만 했고 2년의 시간이 작업적인 측면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고전의 느낌이 들어서 변화의 과정 등으로 이 전시가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상실은 작업과 관련 없지만 미술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 미술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2년이었습니다.

관객 : 구민정 작가님에게 질문이 있는데 전시를 하실 때 공간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셨는데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품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민정 :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작업 공간 자체가 저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시작점이 되고 모티브가 되는 작업들은 작업의 크기와 소재가 공간 안에 맞춰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전시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작업이 있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진전시킨 상태에서 이 작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전시나 주어진 공간 없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평면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김인선 : 오랜 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분들이 '보고전'같은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시가 작가 분들의 시작점이나 중간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링앤딜링에서의 PT & Critic 횟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좋은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